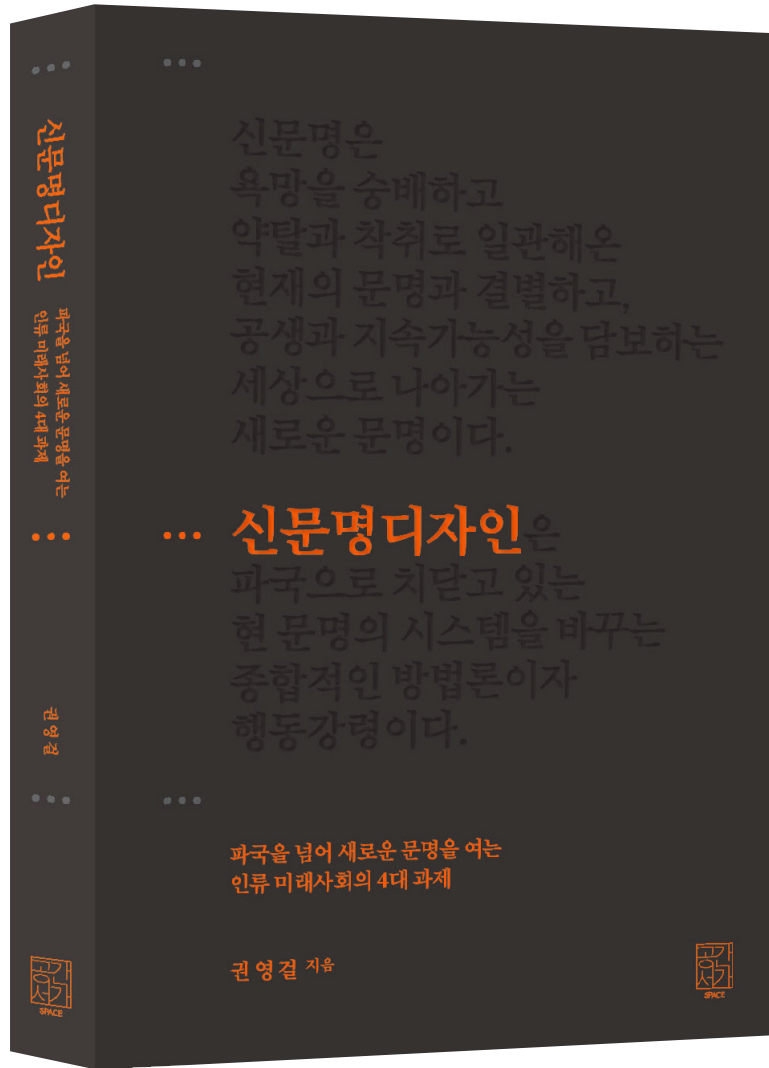


# 신문명디자인

파국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인류 미래사회의 4대 과제



권영걸 한샘 사장(전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이 바라본  
위기의 문명, 그리고 새로운 미래!

전 세계 75개국 680여 도시를 직접 발로 뛰며 탐사한  
이 시대 최고의 디자인 전문가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 신문명디자인

파국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인류 미래사회의  
4대 과제

...  
신문명은  
욕망을 숭배하고  
악탈과 착취로 일관해온  
현재의 문명과 결별하고,  
공생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문명이다.

... **신문명디자인**은  
파국으로 치달고 있는  
현 문명의 시스템을 바꾸는  
종합적인 방법론이자  
행동강령이다.

...  
파국을 넘어 새로운 문명을 여는  
인류 미래사회의 4대 과제

권영걸 지음



지은이 권영걸 | 발행일 2016년 9월 9일  
쪽수 216쪽 | 판형 152X225mm | 가격 18,000원  
분야 인문 > 인문학일반 > 일반교양  
주제어 신문명, 디자인, 근대, 동서양, 중국, 디지털, 지속가능성  
ISBN 979-11-87071-07-5

공간서가 [www.vmspace.com](http://www.vmspace.com) 전화 02-396-3359 팩스 02-396-7331 이메일 [editorial@spacem.org](mailto:editorial@spacem.org)



『신문명디자인』은 “현대 산업사회는 어떻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가? 미래사회는 어떠한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창조되는가? 새로운 문명을 열기 위해 어떤 디자인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하는가? 미래사회 디자인 경향을 선도하기 위해 실천할 내용은 무엇인가?” 등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디자인’이라는 명확한 열쇠를 통해 풀어보는 시도이다.

16세기 이후 유럽은 식민지 경영과 산업혁명 등을 통해 자원의 부족을 해결하고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근대성(modernity)’을 확립시켜왔다. 이는 제국주의의 확산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며 더욱 공고해졌고, 그 후 미국으로 사회경제적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이른바 ‘개발(development)’ 과정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지금 세계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어느 지역이든 서양적 가치, 관습, 행동, 사고방식을 취하며 ‘따라잡기 개발(catch-up development)’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패권주의와 기술 지배에 의해 확립되어온 근대성이 이제는 지구 전체의 주류 패러다임이 된 것이다. 하버드대학의 중국학 중신교수인 두웨이밍(杜威明)의 말처럼 서양은 초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산업화를 가파르게 진행시키던 서양이 19세기 중엽 아편전쟁 이후 동방 진출을 본격화했다. 강제된 개방 요구에 무릎을 꿇은 중국이 물밀듯 밀려오는 서구 문물에 대한 방어논리로 중체서용(中體西用)<sup>3</sup>, 즉 동양 전통의 정신성은 계승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취했고, 비슷한 시기에 한국은 동도서기(東道西器), 일본은 화혼양재(和魂洋才)를 강령으로 삼았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사회에 머물러 있던 동양은 서양에게는 착취와 약탈의 대상이었고, 새로운 사회를 일구어낸 서구는 동양에게 모방과 추종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질적 두



(상)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프리카인으로 구성된 미군 부대  
(하) 근대 도시의 상징, 뉴욕 타임스퀘어



아편전쟁(鴉片戰爭)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를 졸업(미술학사)하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를 수료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LA 대학원 디자인학과를 졸업(디자인학석사)하였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를 졸업(공학박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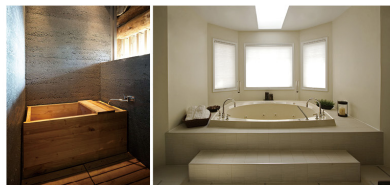
『나의 국가디자인전략』, 『공간디자인의 언어』, 『공공디자인행정론』, 『서울을 디자인한다』, 『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산책』, 『공간디자인16강』, 『색채와 디자인 비즈니스』, 『한중일의 공간조영』 등 39편의 책을 펴냈고,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 색채디자인에 관한 여러 논문을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하였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서울대학교 미술관 관장을 역임했고, 서울시 부시장 겸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으로 다차원적인 도시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창조경영대상 2009를 수상했으며, 정부로부터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재)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사)한국공공디자인학회, (사)한국색채학회 회장, 국회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현재 (사)문화창조연합의 이사장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에서 공간디자인, 공공디자인을 지도하고 있으며, (주)한샘의 사장이다.

2.1.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



(좌) 자연을 삼키는 절제와 자족  
(우) 인공의 욕망을 삼키는 자족의 욕조

공간은 건립사의 形(형태), 즉 이익의 추구에는 반드시 의(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이익의 유혹 앞에서 있는 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자기 규율의 기준이자 행동준칙이다. 맹자 또한 욕망의 절제 방법에 대해서 작은 욕심 즉 '과욕(過欲)'을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감각적 욕망뿐 아니라 도덕적 욕망도 포함된다.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바른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찰, 즉 사(思)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이 반성을 통해 도덕적 욕망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자족(自足)은 과도한 욕망에 대해 울끈은 절제가 이루어진 후에야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되는 상태이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이익 때문에 스스로를 번거롭게 하지 않는다. 강자 또한 자족하기 위해 자아 안에 있는 '비본래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비본래적이고 불필요한 외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그 켜끼기들과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 때 자족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오늘날의 디자이너들도 과도한 욕망을 절제하고, 도덕적 욕망을 고루하여 반성에 이르게 하는 '사(思)의 디자인(design of thought)'을 궁구해야 한다.

“『신문명디자인』은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진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국가, 도시, 가정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격변을 바르게 이끌어갈 새로운 접근 방법과 실천 강령을 담고 있다.” **지은이의 말, 11p**


“디자인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열어가는 결정적인 수단이자 방법이다. 이제 우리는 현재의 낡은 문명을 대체할 새 문명의 길을 찾고, 문명의 형식을 결정하는 디자인의 새로운 원칙을 정립해야 할 지점에서 있다. 필자는 이 책에서 그 원칙과 행동지침을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 4대 과제와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동양과 서양 문명의 편벽(偏僻)된 가치와 성질을 극복 한 온전하고 조화로운 문명을, 둘째, 지속불가능성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순천(順天)의 삶을, 셋째, 제2의 디지털 기술혁명의 성과를 선용하여 건강한 신세계를 여는 글로벌 생활문화 혁명을, 넷째, 중국의 격변과 동아시아 문명권의 부상이 인류 전체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4대 과제 기반의 새로운 디자인 이념을 정립하였다. 탐욕과 수성(獸性)으로 가득 찬 야수의 문명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신문명으로의 전환은 디자이너들의 대오(大惡)와 각성에서 비롯된다. 근대디자인의 과오와 모순을 성찰하고 미래 디자인의 4대 과제를 풀어갈 때 인류는 신문명을 열어갈 수 있다.” **지은이의 말, 12-13p**

“물질 중심 사회가 몰고 온 파국은 예고된 귀결이었다.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미국의 자본주의 이전에 근대화를 발흥시킨 서구의 관점 자체가 현실 세계의 총체성과 복잡성을 인식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세계를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도구로서의 자연을 강조하는 인식 등에 의해, 지속불가능성은 서구 문명의 구조 내에 근원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머리말, 32-33p**

“20세기 디자인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사람과 물질의 고리로 대체시킨 원죄가 있다. 이제 디자인은 생산 제일주의의 목적에 봉사했던 지난 세기의 그릇된 역할을 반성하고, ‘자연의 도를 따르고 인간을 섬기는 것’을 궁극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머리말, 39p**

눈빛 나아가 마음에 반응하는 도구와 제품, 힘들고 위험한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 등의 문제에 대해 디자이너들은 시대적 이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가 물고 울 새로운 표준(new normal)의 시대에 국가, 도시, 가정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할까?

3.1.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디지털 국가디자인



지구촌 곳곳을 연결하는 디지털 신경로망

126 신문화디자인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초국가적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의 의미는 쇠퇴하고 있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나 공동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고, 물리적 공간에 모여 논쟁할 필요가 없는 시대에 국회의 필요성도, 국가와 국경의 의미도 도전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리더를 뽑을 때,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제는 최적화보다 비전과 희망을 주는 리더, 디지털 기술 기반 문명의 핵심을 이해하고, 기술의 폭력과 위협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리더여야 할 것이다. 자원은 그 다음의 문제이다.

디지털 기술은 승자독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공유하는 만인 해택(萬民)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126 신문화디자인

127 제21 과제: 디지털 기술의 선용과 생활 속의 디자인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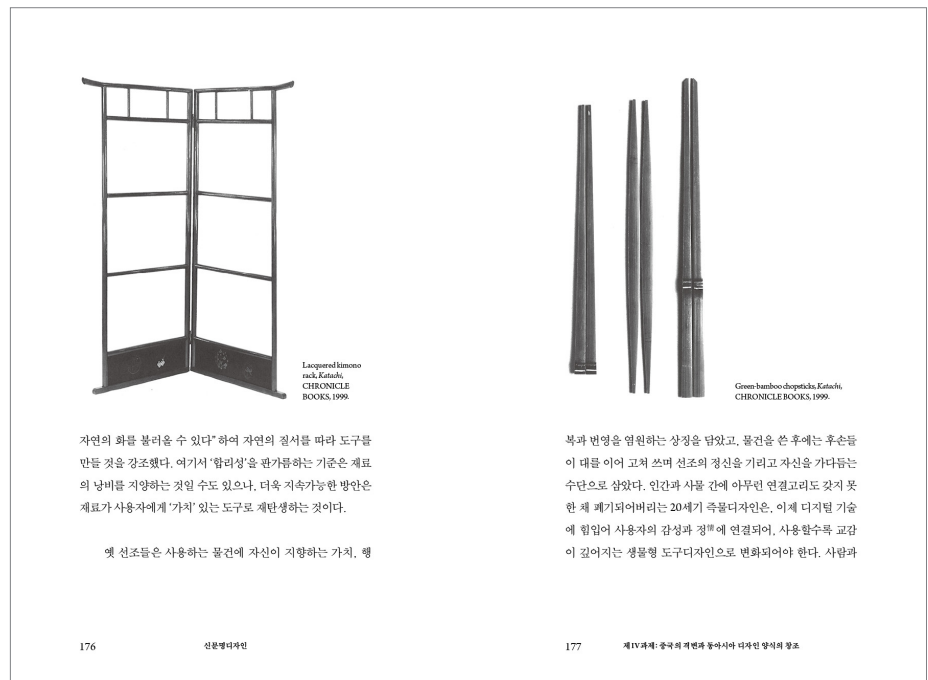
“인간은 누구나 문화인류학적으로 모국어어를 가지고 있다. 언어뿐 아니라, 인간이 지어낸 어떤 구축물이나 인공물에도 집단 고유성, 즉 ‘모국성’이 있다. 즉 인류학적 계통이 다르고, 기질과 성향이 다르며, 인간 가치와 미적 가치의 ‘다름’에 의해 다른 조형 문법이 탄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과 서를 넘어서는 디자인’이란 개별 문화의 특수 형식과 내용이, 상호 소통이 가능한 보편 문법과 규칙으로 진화된 형태를 이르는 것이다.” 제1과제: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새로운 문명의 창조, 61-62p

“이제 우리는 지난 세기 동안 추구해온 엑스터시의 디자인을 중단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가치의 디자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답을 외부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역사와 문화, 풍토와 환경에서 ‘맥락의 디자인’을, 인간적 유대를 회복시키고 공동체를 재생하는 ‘관계의 디자인(design of relationship)’을 모색해야 한다.” 제2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사고의 전환, 107p

“우리는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지금까지 디지털 기술의 함의에 대해 우리가 주목했던 기술적 특성과 경제적 가치가, 이제는 종래와 전혀 다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무생물인 디지털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수단으로 운용하는 인간에 의해 악마성을 드러낼 수도, 천사성을 가질 수도 있다.” 제3과제: 디지털 기술의 선용과 생활 속의 디자인 혁명, 141-142p

“인간과 사물 간에 아무런 연결고리도 갖지 못한 채 폐기되어버리는 20세기 즉물디자인은, 이제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사용자의 감성과 정에 연결되어, 사용할수록 교감이 깊어지는 생물형 도구디자인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제4과제: 중국의 격변과 동아시아 디자인 양식의 창조, 177p

“신문명디자인’은 더 이상 선택의 과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도덕적 명제이자 당위적 명제이다. 그것은 세상의 사물과 공간을 궁리하고, 존재하게 하는 모든 디자이너들의 시대적 책무이다.” 맺음말, 212p



머리말: 근대의 과오와 미래 디자인의 4대 과제

제 I 과제: 동서양의 가치를 융합한 새로운 문명의 창조

- 1.1. 동서양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넘어서는 디자인
- 1.2. 동서양의 '옛것'과 '새것'이 교용(交融)하는 디자인
- 1.3. 동서양인의 '선협'과 '무의식'에 기반한 디자인

제 II 과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디자인 사고의 전환

- 2.1. 절제와 자족의 디자인
- 2.2. 맥락과 회복의 디자인
- 2.3. 가치와 보존의 디자인

제 III 과제: 디지털 기술의 선용과 생활 속의 디자인혁명

- 3.1.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디지털 국가디자인
- 3.2. 건강하고 안전한 스마트 중소 도시디자인
- 3.3. 가정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는 디지털 주거디자인

제 IV 과제: 중국의 격변과 동아시아 디자인 양식의 창조

- 4.1. 디지털 자연주의를 구현하는 중소 도시디자인
- 4.2. 나, 우리, 모두로 나아가는 신문명 주거디자인
- 4.3. 사물과의 깊은 대화를 통한 신문명 도구디자인

맺음말: 신문명디자인이 여는 새로운 시대

2. 디지털 기술의 선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II-III)

디지털 기술은 모든 국면에서 인간의 삶을 조전 지우는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지만, 그것은 변화의 기회 요인이자 위협인 양 면성을 지니고 있다.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욕망 실현을 가속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사회의 지속불가능성을 고조시키자, 사람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을 디지털 기술의 선용에서 찾으려는 논의를 시작했다. '공공선(public good)'을 디지털 기술 선용의 근본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유익이 이상적인 인격으로 상징된 무사심(無私心)이 필요하다. 지속가능 사회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의 선(善)을 추구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이상행인 것이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디자인은 국가, 도시,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간

의 신경체계처럼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적 신경망을 구축하여, 국가와 지구촌 도처에서 발생하는 지속불가능성의 문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경보하는 일에서부터, 주거공간의 안전과 미세한 니즈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디자인 대응 능력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보다 더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동서 문명의 융합이 필요하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영역별로 체계화된 디지털 기술의 선용이 뒷받침되

디지털 기술의 선용으로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I-II)

192 신문명디자인

193 맺음말: 신문명디자인이 여는 새로운 시대





공간서가(SPACE Books)는  
월간 「SPACE(공간)」의 편집부가 발행하는  
건축예술 분야 단행본 브랜드입니다.

1966년 창간 이후 한국 건축문화예술의 담론을 생성해온  
「SPACE」의 역할을 확장한 것으로,  
동시대의 건축과 예술을 더 깊은 호흡과 시선으로 대중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